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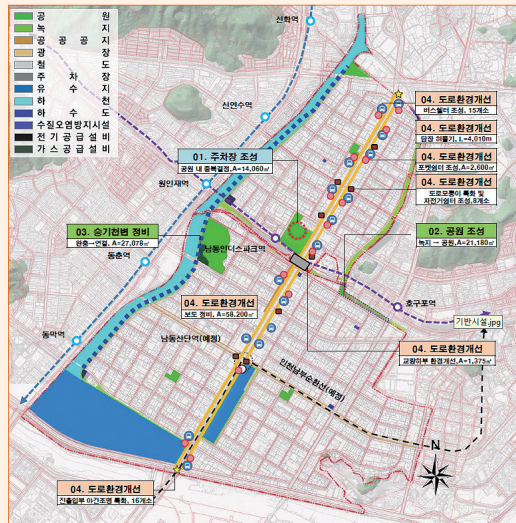
# 인천시, 노후·열악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 산업진흥과  
2022.5.11.

국토교통부가 총 368억 원 규모의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을 승인하였다. 남동국가산업단지는 2021년 말 기준 6,89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고용인원은 10만 1,000여 명에 달하는 인천 최대의 산업단지이다. 이곳은 1980년대 중반 수도권 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의 용지 제공을 위해 조성되어 단지가 들어선 지 30년 이상 경과되었다.

인천시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남동산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고자 입주한 기업체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실시설계를 통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에 재생사업 총사업비 승인을 요청하였고, 협의 결과 총 368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 177억 원(48.2%)과 시비 191억 원(51.8%)의 분담비율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남촌·고잔동 일원 950만㎡ 대상지에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 2024년까지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정비될 예정이다. 이번 재생사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데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남동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381면) 조성 ▲호구포역 인근 공원(2만 1,180㎡) 조성 ▲승기천변 연결녹지(2만 7,018㎡) 정비 ▲남동대로 도로환경 개선 사업 등이다. 특히 주차장 조성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남동산단의 최대 현안인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도  
출처: 인천광역시, (2022), 「노후 산단에 새 활력 넣어 줄」 남동산단 재생사업 본궤도. 5월 11일 보도자료.